

# 실체없는 가해자, 끝나지 않은 전쟁

...『일본의 국왕 히로히토와 일본 정부는 유죄』...

지난 12월 8-10일,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피해국가들과 일본의 주최로 일본 동경에서 열린 가운데 담당검사는 일본국왕과 정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1991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였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기점으로 시작, 10년의 기간동안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따른 값진 결실이었다.

1930년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도중 「군인들의 성병을 예방하고 군사기밀의 누설을 막는다」는 명목 하에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매개는 하루에 40여명에 대한 성적행위를 강요, 수많은 여자들을 군대의 성적노리개로 만들었던 일본.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은 그러한 일본군 성노예제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계된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인권법정으로 비록 그에 따르는 처벌 등 어떤 강제력은 없으나 이 때까지 왜곡·은폐 되어왔던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더 넓게는 일본뿐만이 아닌, 과거 이른바 「강대국」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국제법정에서는 1945년 당시의 국제법을 적용, 수석검사단이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을 기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남북공동기소단 검사단의 일원인 박원순·홍선욱 검사의 공동기소가



있었고 김영숙, 안복순 할머니 등 일본군 성노예 제도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후 12일, 국제법정의 재판관들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된 검사 측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 피고인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은 당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강간과 성노예 등 인도에 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에 의해 유죄이며 일본정부 역시 위안소 설치 운영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임을 인정,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국제법정에 대해

대부분 일본 언론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이 이루어지는 도중 일본의 한 우익단체의 회원들은 그 주변을 에워싸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해 아직까지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은폐·부인하려고만 하는 일본인들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이 때까지 성노예 문제에 대한 행사 중 가장 많은 취재진이 모였다고 하는 2000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유죄」라는 판결 하에 지금까지 묻혀왔던 성노예제도에 대한 진실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전쟁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배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진행일정

- ▶ 12월 7일  
· 개막식 및 남북공동기소 기자회견
- ▶ 12월 8일  
· 판사단에 의한 개회  
· 국제검사단의 기소요지 발표 및 일본측의 변론요지 발표  
· 남북공동기소, 일본의 기소
- ▶ 12월 9일  
·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피해국가 기소 및 전문가 증언  
· 각국 위안부와 관련된 비디오 페스티벌
- ▶ 12월 10일  
· 동티모르 기소 및 가해자의 증언  
· 세계 인권의 날 페스티벌
- ▶ 12월 11일  
· 최근 무력갈등하의 성폭력에 관한 국제공청회  
· 위안부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와의 만남  
· 피해자 지원단체간의 간담회
- ▶ 12월 12일  
· 판사단의 판결 및 논평  
· 폐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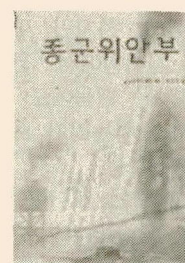
일본군 성노예와 국제법정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언론을 통해 보도된 피상적인 이야기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실로 방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성노예 및 국제법정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 종군위안부

-노라 옥자 켈러 지음



『내 아버지는 내가 죽었다』... 「도시에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파

라나갔던 한국 소녀가 위안소로 끌려가 「아키코 41번」이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성노예가 되고,

이후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는 평생 성노예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채 정신적 장애를 겪다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다.

「종군위안부」는 어린 나이에 경험한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이 한 여인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늘 「그 여자는 진짜 우리엄마가 아니다」라고 중얼거리는 소녀 배카. 그녀는 아키코의 신경질과 발작을 보면서 실제로는 다른 엄마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아키코를 경멸한다. 하지만 아키코가 죽으면서 남긴 육성이 담긴 테이프와 신문기사에는 아키코가 차마 딸에게 말하지 못했던 과거가 담겨있었고, 그것을 통해 배카는 그녀의 어머니를 이해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은 한 국가의 군대가 그녀에게 남기고 간 상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지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도서출판 밀알 · 1만원)

## 「증언집-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내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의지해야 할 가족들에게까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대로 진실이 묻혀져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

고 누군가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당시 위안부와 조선인에 대한 일본군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긴 책이 있다. 「증언집-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한울출판사)이 바로 그것. 너무나 치욕스러운 과거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증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일본군 성노예제도 피해자들. 이 책은 일제시대 「종군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사람들의 처참한 기억을 폭로, 일본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과 자료들이 같이 담겨있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한울출판사 · 8천원)

##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홈페이지(<http://www.tribunal2000.org>)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홈페이지에서는 얼마 전 진행된 국제법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진행과정,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담은 동영상 등 일본군 성노예와 국제법정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 일본군 성노예 제도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그 의미를 더했던 국제법정. 국제법정의 홈페이지에서는 행사가 언제부터 준비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동영상과 신문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http://witness.peacenet.or.kr>)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의 자료실에는 처음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문제점이 밝혀졌던 91년도부터 피해자들이 일본의 보상을 받기 위해 진행해온 수요집회,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등 정신대대책협의회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위해 해왔던 행사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강덕경 할머니의 그림도 볼 수 있다.